

[2006년 10월 01일] 서울시 9급 기출복원-(국어:송태웅 교수님)

송태웅 (에듀스파행정고시학원)

1. 다음 중 어휘의 대응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범 : 개호주
- ② 곰 : 능소니
- ③ 꿩 : 깨방이
- ④ 송어 : 깔떼기
- ⑤ 고등어 : 고도리

답 4

해설 : 송어의 새끼-모쟁이. 농어의 새끼-깔떼기

2. 외래어 표기법 원칙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8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답 1

해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3. 용비어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문으로 된 본가에 국역시를 덧붙이고, 국문의 주해를 단 체제이다.
- ② 세종 27년인 1445년에 완성되었고, 주해와 간행은 세종 29년인 1447년에 이루어졌다.
- ③ 전체의 구성은 서사[開國頌], 본사[史蹟讚], 결사[戒王訓]의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다.
- ⑤ 최초의 국문 악장이다.

답 1

해설 : 용비어천가는 1445년에 우리말 시가로 완성되었고, 1447년에 한문으로 주해하였다.

4. 다음 중 索의 뜻이 다른 하나는?

- ① 探索
- ② 搜索
- ③ 索出
- ④ 索引
- ⑤ 索莫

답 5

해설 : ①탐색 ②수색 ③색출 ④색인 ⑤삭막

5. 다음 중 작가가 다른 작품은?

- ① 윤씨행장
- ② 구운몽
- ③ 서포만필
- ④ 사씨남정기
- ⑤ 계축일기

답 5

해설 : ①②③④는 김만중의 작품이고, 계축일기는 어느궁녀의 국문으로 된 궁중수필 작품이다.

6.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이 포함된 것은?

- ① 뒤편-햇수
- ② 윗층-뒷사람
- ③ 셋방-헛바늘
- ④ 사흘날-전세방
- ⑤ 모깃불-아랫니

답 2

해설 : ②윗층→위층

7.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불휘 기픈 () 브락매 아니 뭇씨 곶 도쿄 ()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그믄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 가느니

- ① 남근-열음-바락래
- ② 남근-여름-바라래
- ③ 남근-여름-바락래
- ④ 남간-여름-바락래
- ⑤ 남간-열음-바라래

답 3

8. 다음 중 연결 관계가 옳은 것은?

- ① 박지원-호질-국문소설
- ② 정철-면앙정가-시조
- ③ 박인로-성산별곡-가사
- ④ 수양대군-석보상절-전기
- ⑤ 허균-홍길동전-한문소설

답 4

해설 : ①한문소설 ②송순-가사 ③정철 ⑤국문소설

9. 다음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고르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처하는 것에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하는 데에는 민첩하고 말하는 데에는 조심하며 道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質正한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子曰君子는 食無求()하며 居無求()하며 敏於事而()於言이요 就有道而()言이면 可謂好學也已니라.

-論語, 學而篇

- ① 飽-信-正-安
- ② 飽-正-信-案
- ③ 飽-安-愼-正
- ④ 胞-安-信-情
- ⑤ 胞-案-愼-正

답 3

10.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표준어의 기능은?

영호 : 퍼떡 와서 밥 무라!

창식 : 아따 어디께 무가 있대요?

영호 : 아 밥 무라니까 무시를 찾노?

창식 : 무시가 뭐라요?

- ① 통일의 기능
- ② 독립의 기능
- ③ 준거의 기능
- ④ 우월의 기능
- ⑤ 예술의 기능

답 1

해설 : 한 나라 안에서 방언과 변종에 따라 말이 다르면 의사 소통에 불편이 생기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이에 국민 누구나 배워 익혀 따르도록 정한 말이 표준어인 것이다.

11. 다음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걸잡다/견잡다
- ② 길이를 늘려

- ③ 불을 붙이다.
- ④
- ⑤ 차에 부딪혔다/차가 부딪쳤다

답 2

12.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4구체, 8구체, 10구체 중에서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 ② 향가집으로 '삼대목'이 전한다.
- ③ 도솔가는
- ④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진다.
- ⑤

답 2

해설 : 삼대목은 전해오지 않는다.

13. 다음 중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從屬 종속, 相殺 상살
- ② 標識 표식, 平易 평이
- ③ 惡寒 악한, 宅內 덕내
- ④ 嗚咽 오열, 一切 일체
- ⑤ 句讀點 구두점, 敗北 패북

답 4

해설 : ①相殺 상쇄 ②標識 표지 ③ 惡寒 오한 ⑤ 敗北 패배

14. 다음에서 강호가도의 시조를 고르시오.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 ㉡말 업슨 靑山이요, 態 업슨 流水ㅣ로다
갑 업슨 淸風이요, 님쥬 업슨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슨 이 몸이 分別 업시 늘그리라 (성훈)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너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맞져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돌너 두고 보리라. (송순)

㉡
 ㉢ㅁㅅㅅ이 어린 後(후)ㅣ니 ㅎ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브람에 ㅎ여 권가 ㅎ노라.(서경덕)

①㉠ ② ㉠㉡ ③㉠㉡㉢ ④㉠㉡㉢㉡ ⑤㉠㉡㉢㉡㉢

답 : 3

해설 : ‘강호가도(江湖歌道)’란 조선 시대 시가 문학의 한 경향으로, 세속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로움을 노래한 작품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15. 다음 조사 중 붙여 써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

- ㉠ 아는 것이
- ㉡ 믿을 건 너 뿐이다.
- ㉢ 약속 대로
- ㉣ 여기에서 부터가
- ㉤ 그가 떠난 지 사흘

① ② ③㉡㉢㉣ ④ ⑤

답 3

해설 : ㉡너뿐이다 ㉢약속대로 ㉣여기에서부터

16. 다음 한국어의 특징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열음계열의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가지 대립을 보인다.
- ② 굴절어로 조사와 어미로 문법적 특징을 나타낸다.
- ③ 문장 성분들의 위치가 자유롭다.
- ④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되었다.
- ⑤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며,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보인다.

답 2

해설 : 한국어는 교착어이다.

17. 다음 속담의 뜻풀이가 잘못 된 것은?

- ① 곰이라 발바닥을 핥으라 - 아무 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말
- ② 방귀 꺾다가 똥 쓴다. -
- ③
- ④ 감나무 밑에 누워도 샷샷 미사리를 대어라
- ⑤ 호박씨를 까서 한입에 털어 넣는다.-내송을 떤다.

답 5

해설 : ⑤는 힘들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털어 없애는 경우를 말한다.

18. 다음 <보기>와 유사한 인식이 담긴 구절은?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취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 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보기>

옥(玉)에 흠이 묻어 길가에 버려지니
오는 이 가는 이 다 흠만 여겼도다
두어라 흠이라 한들 흠일 줄 있으랴

- ①ㄱ ②ㄴ ③ㄷ ④ㄹ ⑤ㅁ

답4

해설 : <보기>의 시조는 옥에 흠이 묻어 버려지니 사람들은 다 옥을 흠으로만 여겼다는 세태를 꼬집는 내용이다. 즉 내면의 소중함을 통찰하지 못하고 겉치레만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본성의 소중함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중함을 말하는 시조이다. 이규보의 경설(鏡說)에서도 ㉠거울의 본성은 맑은 것이나 먼지가 끼면 흐려진다는 현상을 말하면서, 인간에 있어서도 본성이 흐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통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신채호, 최남선 민족사학자 지문

- ①보기를 나열해서 설명한다.
②
③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④사건의 근거와 자료를 들어 설명한다.
⑤

20.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이 주어진 글과 유사한 것은?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 ① 최인훈의 '광장'은 우리에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뿌리를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③ 황순원의 '독 짓는 늙은이'에는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서술자의 설명적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태준의 '해방 전후'에는 해방 전후 이념적으로 극심하게 혼란했던 시기를 겪어 내야 했던 작가의 체험과 이념적 고뇌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⑤

정답 : 4

해설 : 제시된 지문은 작가의 경험과 내적 특징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다는 소위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글이다. 표현론적 관점을 말한 것은 ④이다. ①효용론, ②반영론, ③절대론